

제28차 한·중 해운회담,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관리 방안 등 논의

- 한·중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 합의, 항권 질서 확립 방안 마련
- 인천-천진 카페리항로 조기 정상화 및 선박 투입 원칙 확인
- 중국 항만 하역료 인상 자제 요청 등 업계 현안 적극 제기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6월 4일(목)부터 5일(금)까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현안인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개방, 운항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수석대표 등 13명이, 중국 측에서는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 이청(李靑) 수석대표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한·중 해운회담은 1993년 양국 정부 간 체결된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근거하여 매년 개최되는 정례 회담으로, 이번이 제28차에 해당한다.

양국은 중국 측이 기 신청한 인천-일조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동의하고 이후 신청되는 신규항로에 대해서는 기존 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향후 개설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인천-천진 카페리항로의 조기 정상화에 동의하였다. 진천항운의 운항 중단* 이후 공백 상태였던 동 항로의 운항 재개를 위해, 양국이 균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동항운이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주)진천국제객화항운의 천인호가 선령 30년에 도달하여 운항 중단('20.2)

이와 함께, 충청권에 국제 항로가 없는 점을 고려, 대산-석도 카페리 항로 개설에 합의하였고 추후 운항 선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페리 신규항로 개설 시 신조 카페리선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신조를 전제로 한 임시 컨테이너선 투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신규 사업자가 임시 컨테이너선 운항으로 영업 이익을 취한 뒤 신조 투입 의사를 번복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중국 주요 항만의 과도한 하역료 인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요구하였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회담은 인천-천진 항로 정상화 등 한·중 해운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양국 선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한·중 해운시장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원배 (051-773-5710)
		담당자	사무관	명수한 (051-773-5718)

